

교회병원과 자연가족계획

Natural Family Planning Activities in Catholic Hospitals

맹 광 호

〈가톨릭의대 교수, 예방의학〉

〈「행가운」진국협의회 사무국장〉

□ 차 례 □

1. 머리말
2. 가족계획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3. 가톨릭의료인들의 자연가족계획활동에 대한 교회의 기대
4.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과 가톨릭병원협회
5. 교회병원의 자연가족계획 활동평가와 전망
6. 맺음말

1. 머리말

금년 8월 17일 바티칸에 있는 성청가정위원회에서 회장 에드워드 개농추기경과 부회장 프랑스와 아리기 주교 이름으로 전세계 가톨릭계 대학교 과학연구소들과 의과대학 학장들 앞으로 자연적 출산 조절에 관한 서한(Note on the natural regulation and methods of observing fertility¹⁾)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 서한에 보면, 인간생명 전수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그동안 교회가 권장해 온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이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매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전세계 가톨릭계 교육 및 의료기관들이 앞장서 이 방법을 보급하고 더욱더 연구발전시켜 줄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교회는 전세계 인구문제 및 부부들의

가족계획문제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중요한 문헌을 발표해 온 것이 사실이며 특히 그 구체적 실천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내 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호소해 온 일도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교회내 각 연구기관과 의료인들에게 서한 형식의 거의 개별적인 호소와 당부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이 연제를 발표하면서 한가지 특히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금년도 우리 한국가톨릭병원협회 추계 세미나 주제를 바로 이 교회병원과 자연가족계획활동으로 정하고 난 직후 이 서한이 저희 가톨릭 중앙의료원에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단지 우연한 일일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결코 예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본 연제에서는 자연가족계획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 일을 위해 교회는 우리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며,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의료기관은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어떻게 순응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2. 가족계획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교적 가치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제도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친 물질주의와 이교도적 향락주의의 위협을 받았고, 또 어떤때는 반대로 지나친 정신주의와 엄격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몇 십년동안 교회는 적어도 급격한 기계문명의 발달에 깊이 영향을 받은 물질주의, 편의주의와 소위 성해방 풍조에 의한 향락주의로부터 사목상 많은 위협을받아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작은 교회'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제도가 겪는 위기에 대해서 교회는 사목상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 사회의 가정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혹은 어떤 양식으로 변태시키려는 다양한 세력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가정공동체 3항) 라고 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 위협들로서 "이혼의 증가, 인공유산의 폐해, 불임시술의 증가, 피임 사고방식의 출현" (가정공동체 6항)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들 위협이 단지 가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결국은 사랑에 대한 위협이자 생명자체에 대한 위협이며, 바로 인간존재의 의미와 품위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결교육과 자연적 가족계획 보급에 대해서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말하자면 이 일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과 함께, 가정을 위협하는 예의 각종 피임 행위나 인공유산이 크게 성행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²⁾

가족계획에 관한 교회의 구체적 가르침은 대체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전후로 해서 고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전후에서 인구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각종 피임방법들이 개발,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로 급변하는 현대세계의 문제들을 사목상의 문제로 다루어 그 해결책을 제시한 중대한 회의였기 때문이다.

몇가지 문헌을³⁾ 통해서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인 1930년 비오11세의 회칙(정결한 혼인)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든 피임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1950년대의 비오 12세 시대에는 중대한 동기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피임을 위해 주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데 비오 11세의 회칙 정결한 혼인 에서 보면, "부부행위는 본질적으로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함에 있어 고의로 그 힘과 효력을 박탈하는 해위는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다.(중략) 혼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이든 인간의 노력에 의해 혼인행위에서 생명을 출산하는 자연의 힘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신법과 자연법에 위배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9년에서 1958년까지 재위한 비오 12세 교황은 자연적인 불임기를 이용한 피임에 관해 다소 긍정적인 승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승인되는 경우는 교황에 의해서 제시된 중대한 동기 즉, 의학적, 위생학적, 경제학적, 사회적 이유가 있는 한에서였습니다.

어쨌든 공의회 이전의 가족계획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우선 문헌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풍부하거나 자세한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분히 실제적이라기보다 윤리적인 측면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이 점에 관해서 매우 자세하고 많은 양의 가르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크리스찬뿐 아니라 인류전체를 향해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공포한다"고 밝힌 <사목헌장>은 혼인과 가정의 중엄성과 함께 적어도 가족계획에 관한 한 "하느님의 법을 복음의 빛으로 권위있게 해석하는 교회의 교도권을 온순히 따르도록" (사목헌장 50항)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가족계획에 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포된 회칙 <인간 생명>⁴⁾과 1983년 현 교황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공동체>⁵⁾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칙 <인간 생명>은, "그러므로 산아조절의 그릇된 방법으로 비록 치료의 이유라 할 지라도 직접적

인 낙태는 물론 인공 임신중절을 산아 조절의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의견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직접 단종시키는 행위, 또한 부부행위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피임을 목적하거나 그 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인간생명 14항)"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 금욕생활을 통한 자연적인 방법만은 "부부의 육체적 혹은 심리적 이유이건 또는 외적 환경의 이유이건 간에, 다음 출산과 사이에 간격을 두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부는 생식능력에 내재하는 자연주기를 이용하여 불임기에만 부부행위를 함으로써 산아를 조절하는 것은 괜찮다"(인간생명 16항)라고 분명하게 교회의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칙<인간 생명>이 발표됐을 때 교회 전체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회칙의 가르침이 크리스찬적 부부생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모든 부부들을 위한 의무적 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은 이 회칙을 발표한 교황 바오로 6세 자신이 이를 발표하기에 앞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세심한 검토를 거듭했으며, 또 얼마나 큰 고충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여 회칙을 마련하는데 필요했던 지난 4년 동안 내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계속되었었다. 솔직히 고백한다면 이런 책임감이 내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다. 스스로의 책임감을 이렇게 무겁게 느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힘이 자라는데까지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읽었으며, 많은 토론을 전개하고 많은 기도를 바쳤다. (중략) 이렇게 산더미같이 모여든 논쟁 앞에서 나는 몇 번이나 당황했으며 인간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결정 선포해야 할 끔찍한 사도적 사명에 스스로 부담함을 몇 번이고 다시 느끼곤 했다. 시대적 여론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사회가 어렵게 받아들일 나의 의견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라는 회칙 머리에 솔직한 교황의 말은 바로 이 회칙이 얼마나 어렵게,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함께 또 "반대받게 될 표적"(인간생명 18항, 루카2, 34)이 될 것을 알면서도 교황 바오로 6세가 모든 형태의 인공적 피임방법 사용금지를 재확인할 양심상의 의무를 느낀 결정적 이유의 하나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교도권으로 항구히 가르쳐 오던 혼인의 도덕률에서 거리가 먼 것"(인간생명 6항)이란 점과 다른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따라올 결과, 예컨대 혼인과 가정, 나아가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 상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될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이같은 교황 바오로 6세의 결정은 그 뒤 해가 갈수록 세상 일의 되어짐들 속에 그 가치가 더욱 크게 인정받게 되었고, 실제로 회칙 <인간 생명> 반포 10주년을 맞은 1978년, 그리고 20주년이 되는 1988년 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고 그 판단이 옳았음을 기리는 각종 대회와 학술모임들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과 함께 가족계획에 관한 우리교회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밝힌 것으로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가정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현대 세계의 가정 상황을 고찰하면서 가정이 "기본가치 붕괴의 혼란"(가정공동체 6항)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배우자 상호관계의 독립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 부모와 자녀간 권위 관계에 대한 심각한 오해, 그리고 가치전수에 있어서 가정이 경험하는 구체적 난관, 이혼의 증가, 인공유산의 폐해, 불임시술의 증가, 피임 사고방식의 출현"(가정공동체 6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그의 회칙 <가정공동체> 31항 이하 다섯 개의 항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과 2차 바타칸 공의회에의 가르침을 완전히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가르침을 단지 경제나 인구문제의 측면에서가 아닌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보다 명백히 확인된 진리(31항)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교황은 신학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해결하는데 있어

서 교도권을 지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가지 인공적 피임행위가 생명 전달에 관한 하느님의 법과 부부애의 육성에 해를 끼친다고 확신하면서 교회가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의 입장을 고수하는 일은 교회가 그만큼 부부들의 사랑을 보호해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태도는 어떤 면에서 바오로 6세보다 더 강경한 편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회칙 <가정공동체>에서 그는 교회가 자연적 가족계획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부들을 도와 주는 교사와 어머니 역할(33항) 때문일 뿐 대부분의 부부들에게 있어서의 “피임 사고”에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계획에 관한 교회의 태도는 단지 피임을 원하는 부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부부와 가정 전체의 참다운 복리를 하느님 계획 안에서 다루려는 의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가톨릭의료인들의 자연가족계획 활용에 대한 교회의 기대

자연 가족계획은, 원리적으로 볼 때, 다른 가족계획 방법들과는 달리 기술(technology)이 아니고 하나의 교육과정(educational process)입니다.⁸⁾

즉, 그것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어떤 기계나 약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임신의 원리를 인지함으로써 (fertility awareness)이 지식을 부부 스스로 피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가족계획은 그 방법의 개발 과정이나 실제적인 지도에 있어서 반드시 의료인이 관여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의 성격상 그것이 의료인들의 참여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서 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두말한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특히 자연가족계획방법의 핵심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는 배란시기의 신체변화를 자신있게 지도하고 때때로 경험하는 비정상적

신체변화등에 관한 상담은 의료인이 아니고는 제대로 해 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리적으로 합당한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권장하면서 여러 과학자들과 가톨릭의료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당부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헌적으로, 부부들의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교회가 의료인들에게 구체적인 당부와 가르침을 준것은 역시 1965년에 발표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입니다.

문론 이보다 14년전인 1951년, 교황 비오 12세께서 이태리 가톨릭 산파들 모임에 참석하시고 말씀하신 ‘산파들에게 주는 담화문’⁹⁾이라는 유명한 연설문이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가족계획이나 인공유산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다시 천명하는 것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일에 가톨릭 의료인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공의회문헌 사목헌장 제2부안에 있는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에 보면 혼인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해야 할 만민의 의무(52항)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학자들, 특히 생물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등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로써 산아조절을 도와 주는 여러가지 정당한 조건을 밝혀 내기로 노력한다면 결혼 생활로 가정생활의 행복과 또 양심의 평화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때만해도 자연가족계획 방법은 사용이 까롭고 따라서 효과도 낮은 달력 주기법이나 기초체온법 정도였기 때문에 좀더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연가족계획방법의 개발에 여러학자들, 특히 의료인들의 노력을 당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곧이어 1968년 7월에 발표된 교황바오로 6세의 <인간생명> 회칙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될 뿐만 아니라(24항) 동문헌 27항에서는 ‘의사들과 의료관계 인사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 지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나는 학자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전문적 공동연구로써 산아조절을 도와 주는 여러 가지 정당한 조건을 밝혀내기로 노력한다면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의 행복과 또 양심의 평화를 위해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미 빠오 12세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가장 바람직한 일은, 의학이 자연주의를 살피서 정당한 산아조절의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것이다. 이렇게 학자들과 특히 가톨릭 학자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생명 전달에 관한 하느님의 법과 진정한 부부애를 보장하는 하느님의 법 사이에는 참된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씀으로써 역시 보다 과학적인 자연가족계획방법 개발을 당부하고 있으며, 동문헌 27항에서는 “의사들과 의료관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인간적 관심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교적 사명이 요구하는 것을 더욱 존중하는 이들에게 극도의 존경을 표시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신앙과 바른 이성이 요구하는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계속 노력하며 관계자들 모임에서도 이런 해결책을 확신하고 존중하도록 강조하기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분야의 필요한 지식을 마련하여, 부부들이 찾아와서 정당하게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의견을 주고 정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직책상의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씀으로써 의료인들이 부부들에게 자연가족계획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도록까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가족계획 방법의 과학적 연구와 실제적인 보급에 의료인들이 적극 참여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은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로 반포된 <가정 공동체>에도 거듭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동문헌 35항에 보면 “교회는 여자의 출산 주기에 대한 더욱 정확한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 연구가 성취한 결과를 만족스럽게 보고, 연구의 더욱 과감하고 폭넓은 확대를 종용하는 한편, 모든 이의 책임, 즉 결혼자들을 도와서 사랑을 표현하는 부부 행위의 구조와 목적을 존중하면서 살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의사, 전문가, 결혼 상담자, 결혼 부부들의 책임을 좀더 강하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연적 출산 주기 방법이 알려지고, 존중되며 사용되도록 더욱 과감하고 조직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문헌 외에도 그동안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개별적인 여러 의료인들 모임에 나가 같은 내용의 당부를 계속해 왔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교회의 가르침과 당부가 계속되면서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의 과학성과 유용성을 교회가 점점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사이 몇가지 자연가족계획방법, 특히 점액관찰법이나 증상체온법은 배란과 관련된 점액 및 체온변화, 그리고 이들변화에 직접 연관된 각종 홀몬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에 힘입어 큰 발전을 해왔으며 따라서 이 방법들의 유용성이 점차 크게 인정되어 왔습니다¹⁰⁾.

이것은, 그만큼 교회의 요구에 맞추어 많은 의과 학자들이 이 방법의 과학성을 증명하고 유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에 애써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방법을 보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절대다수 의료인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어떻게하면 보다 많은 부부들이 이 방법의 장점을 확신하고 이를 정확히 배우도록 가톨릭 의료인들이 앞장서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과 가톨릭 병원협회

자연가족계획방법 지도와 보급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가톨릭의료인, 특히 가톨릭의료기관의 참여가 두드러진 나라도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자연가족계획 활동이 바로 이 한국가톨릭병원협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자연가족계획 지도 및 보급단체인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이 1975년 5월 주교회의 산하 평신도 활동단체로 되기까지 가톨릭 병원협회가 그동안 한국 행복한 가정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에 그 준비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가톨릭 병원들이 이 운동에 직접 참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¹¹⁾.

사실 1970년 이전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연가족계획 보급활동은 교회편에서나 신자들 편에서 재래식 주기법이나 기초 체온법을 소극적으

로 소개 또는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일부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가운데 이 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신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온 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 춘천교구장이신 박토마 주교님이 자연 가족 계획의 지도와 계몽을 춘천교구 사목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직접 호주의 빌링스 박사를 만나 두 외국인 골롬반 수녀님을 단기 교육시킨 것을 계기로 1972년 5월 이후 이 빌링스 박사의 점액관찰법을 춘천과 목포 골롬반병원에 본격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가족계획사업이 10년제를 맞으면서 갖가지 인공적 피임방법을 보급하고 인공유산도 성행할때입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하여 1972년 11월에 열린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인공 유산과 피임'에 관한 내용을 토의하고 이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을 위한 가족계획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에 이를 연구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함으로써 그해 11월 대구에서 열린 병원협회 가을 총회에서 이 협회안에 연구위원회 설치를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후 3년 가까이 몇차례의 모임과 지도자 훈련등을 거쳐 1975년 5월 28일에 비로소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창립 총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해 8월 12일에는 세미나 겸 1차 총회를 거쳐 전국 협의회를 서울에 두고 각 교구에 교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우선 서울 성모병원, 춘천 골롬반 병원, 목포 골롬반 병원, 그리고 대구 파티마 병원이 중심이 되어 자연 가족계획 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 또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자연가족계획지도와 보급에 힘쓰는 가톨릭 병원은 모두 14개 정도입니다.

이중에 전임지도원을 두고 상담에 응하는 곳은 서울의 성모병원, 강남의 성모병원, 성마오로병원, 수원의 성빈센트병원, 대전의 성모병원, 부산의 메리놀병원, 춘천의 골롬반병원, 광주외 성요한병원, 순천외 성가롤로병원, 목포외 골롬반병원 등이고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인 상담에 응하는 부천 성가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이 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부정기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서울의 성분도병원, 도티병원, 그리고 대구의 파티마병원등이 있고 한때는 이 활동에 참여했었으나 지금은 이를 중단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가톨릭병원이 없거나 있어도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교구, 예컨대, 청주, 전주, 원주, 안동, 마산, 제주 교구 등에서는 교구청이나 기타 지도자 개인집 등에서 교구내 행가운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 14개 교구에서의 이같은 자연가족계획 보급 및 지도활동은 가톨릭 의과대학내에 있는 전국협의회가 조정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지도자 워크샵과 지역모임, 그리고 여러가지 교육재료를 만들어 각 교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워크샵과 함께 갖는 연차 총회에 보고되는 통계를 보면 연간 약 8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부인이 각 상담실을 통해서 이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이외에 혼인강좌와 본당교육, 그리고 각급 학교와 직장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내지는 가임기인지 교육을 받는 사람은 매년 1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5. 교회 병원의 자연가족계획 활동평가와 전망

무슨일이나 다 마찬가지로지만 교회병원의 자연가족계획 활동 또한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활동목표는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등에 관해서 늘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교회병원 자연가족계획 활동의 타당성(relevance)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단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또 간곡한 당부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판단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일이 교회병원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역시 환자진료가 가장 우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나 교회병원의 가장 일차적이고도 최종적인 목표가 복음화에 있고 의료활동은 바로 그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련 활동이 교회병원 사업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합당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연가족계획 지도와 보급의 경우, 앞서 여러 문헌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은 복음적 중요성이나 그 내용으로 보아 교회병원이 누구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인구정책과 가족계획 사업으로 많은 부부들이 이미 불임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가톨릭신자 부부들 또한 일반 부부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도 이 일의 중요성이 감소되거나 불필요하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인구보건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5년말 현재 우리나라 49세 이하 가정부인 약 700만명 가운데 70.4%가 어떤형태로든지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높은 피임실천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피임방법을 보면, 이들에게 절반이 넘는 40.5%는 본인 또는 남편이 이미 불임수술을 받은 상태이고 4.3%의 부인이 경구피임약, 그리고 7.2%의 부부가 콘돔을, 7.45%의 부인이 자궁내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1.0%는 주기법 등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임실천율에는 몇가지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불임수술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의 불임수술율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성장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늘 비교가 되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등과 비교해도 무려 두배이상이나 높은 비율인 것입니다.¹²⁾

최근들어 다시 복원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으며 일부 복원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병원에서는 이 일로 요즘 여간 바쁜 것이 아닌 것을 보면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40년 가까이 그렇게도 많은 돈과 사람을 써서 보급해온 자궁내 장치나 피임약 사용자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들 인공적 피임방법들의 많은 의학적 부작용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정부에서 전혀 보급도, 권장도 하지 않는 주기법 사용자가 무려 11%나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비율은 터울 조절 목적의 피임부부 비율로 보면 약 37%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나 둘 셋 낳는 동안 일시적으로 피임하는 사람의 37%는 주기법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이들 주기법 사용자들이 주기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 방법을 쓰자면 적어도 자신의 월경주기 13주기정도를 지나면서 각 주기의 길이를 알아야 하고 이중 가장 길었던 주기와 가장 짧았던 주기를 알아서 필요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신율이 높고, 따라서 그만큼 유산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연주기법인 점액관찰법이나 증상체온법의 보급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왕에 다른 방법 마다하고 주기법을 쓰는 부부들에게 만이라도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예의 인구보건연구원 결과를 보면 11.0%의 주기법 사용자들은 다른 일시적 피임방법 사용자에게 비해, 도시 지역 거주율과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이 유의하게 높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이 주기법 사용자 비율은 날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이들 자연적방법 사용자 비율이 높은것은 두말할나위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터울을 두고 그들이 갖고자 하는 수의 아이를 가질때까지 결혼후 단

몇년 동안 만이라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건강하게 피임을 할수 있는것은 물론, 부부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키우게됨으로써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 젊은 부부들의 아름다운 체험담으로도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부부들이 이런 과학적인 자연가족계획 방법을 배울수 있는 곳이 전국 20여곳의 행가운 상담실 밖에는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좀더 이 활동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왕의 병원 자연가족계획 활동에 대해서 그 활동 내용(process)이나 활동효과(program effectiveness)에 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것도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일은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활동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 14개교구 자연가족계획 활동을 정확히 평가할수는 없으나 역시 매년 보고되는 통계표를 보면 교구간의 활동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역시 지도자들의 자질과 병원정책, 그리고 관계자 내지는 교구 지도신부님들의 관심 여부와 큰 관련이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특히할일은, 병원 행가운 상담실의 경우 산부인과의 불임상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어느 병원 상담실의 경우 1988년 한해동안 총 814명의 부인에게 피임지도를 한 반면 산부인과에서 의뢰받은 448명의 불임부인에 대한 임신지도도 실시해서 그중 44명을 임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의 병원 행가운 상담실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이나 가임기인지 교육은 물론 여러가지 모자보건상담도 겸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보전센터로서의 보건활동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지역사회 보건활동은 장차 병원행가운활동을 여하히 계획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더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맺 음 말

교회병원에서의 자연가족계획 활동은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것이 일종의 생명보호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교황바로로 6세의 <인간생명> 회칙이나 현 교황 요한바로로 2세의 <가정공동체>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인공적 피임방법들 모두가 반생명적 가치를 지니는 것 들이라는 사실과도 통합니다.¹³⁾

인공유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궁내장치나 경구피임약 모두가 그 원리상 유산을 촉진하는(abortifacient) 방법들이며 따라서 이들 방법이 근본적으로 반생명적이라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활동, 특히 교회의료활동에 있어서 이 자연가족계획 보급활동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계획이 인체 생식문제에 직접관련된 일인 한 이 일에 교회의료기관이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째는 이미 <인간생명>이나 <가정공동체>에서 자세히 언급된 것처럼 자연가족계획 방법이 단지 피임이나 임신문제 이상으로 부부내지는 가정의 화목과 성화문제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들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의 사용원리에서 보듯이 부부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어느정도의 자기희생을 기본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병원들의 자연가족계획 활동은, 바로 “장차 세계의 복음화가 대체로 가정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가정공동체 52항)라고 한 교황 요한 바로로 2세의 말씀을 따라 가장 적절히 행동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자연가족계획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발전시키는데 앞장서서 우리 한국가톨릭병원협회 회원 병원들의 긍지와 보람은 결코 과소평가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경험을 살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관련 의료분야인 동시에 현대 모든 가정의 중대사인 가족

계획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병원들이 시대적 변천에 적절히 적응해야하는 공의회정신을 누구보다 앞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고 문 헌

1. Gagnon, E. : Note on the natural regulation and methods of observing fertility, August 17, 1989. Pontificium Consilium Pro Familia, Vatican.
2. 버크, C. : <가정 공동체 : 회칙 Familiaris Consortio 개관>. <사목> 86호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pp. 29-37, 1983.
3. 교황 비오 11세 : <정결한 결혼>, 1980, 유봉준, <혼인 성사에 관한 윤리신학적 고찰> <가톨릭대학 신학부 논문집 제1호> pp. 34-40 참조, 1975.
4. 교황 비오 12세 : <이태리 조산원들에게 하신 말씀>, 1959, 박태산, <혼인의 목적>. <전망> 33호 <광주: 대전 신학대학>, 1976.
5. 교황 바오로 6세 : <인간생명>, 1968.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가정 공동체> 1983.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7. 정한교 편역 : <산아 조절 회칙에 관한 방향> 1969 <전망> 2호 (광주: 대전 신학대학)
8. Borknan, T : A social-science perspective of research issnen for natnral family Planning. International Review of Natural Falmily Planning 3(4): 33-355, Winter 1979
9. Pius VII : Address to Italin Catholic Union of Midnies, October 29, 1951
10. Flynn, A.M. : Natural Family Planning and the new technol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Suppl. 1:123-127, 1989
11. 맹광호. 조규상 : 현대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한국 교회사 논문집II. pp 1908-1122, 1985.
12. Ross, J.A. et al. : Family Planning and Child Survival-100 Developing Countries. Center for Population and Family Health, Columbia University. 1988
13. 요한바오로 2세 : 가족계획의 윤리와 인간 가치. 1988년 6월 19-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부친 교황 성하의 제안.